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瀅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尙繁
발 행 소 : 제주대학교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 (직) 54-2278·2279
인 쇄 : 한 라 일 보 사

제437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2년 2월20일 목요일 1

제36회 學位授與式거행

學士 1,646명 碩士 31명 배출

金총장 "불의 앞에 과감히 맞서주길" 당부

◇ 이옥순 양

◇ 신홍균 군

◇ 고용식 군

◇ 윤지영 양

◇ 송경용 군

◇ 김동주 양

◇ 고연순 양

◇ 강길선 양

▲이상 성적 우수자

제36회 학위수여식이 오늘 오전 11시 체육관에서 거행돼 학사 1천6백46명, 석사 31명등 총 1천6백7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형옥총장을 비롯 양성후 총동창회장, 장정언기성회장등 각계인사와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졸업식은 개회식에 이어 국민의례, 학사보고·학위수여·상장수여, 식사, 총동창회장 축사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金총장은 식사를 통해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진리의 문밖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는 오늘로서 끝난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라고 전제한후 "事物을 바로 認識하는 客觀的 精神과 넓게는 人間의 座標를 드러내는 사상적 배경을 깊게 연구하여서, 眞理앞에 謙虛하고 不義 앞에 과감히 맞서서 여러분의 生涯가 진정 고귀한 目的에 바쳐질때 우리의 존재를 주재하는 自然의 섭리는 여러분에게 內面的 풍요로움을 내려 줄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제12회 대학원 학위수여식도 함께 거행됐는데 일반대학원 10개학과 24명, 교육대학원 5개전공 7명에게 석사학위가 수여됐다.

(총장식사 2면 석사학위수여자 및 논문제목 학위수여자 명단 3면)

각 단대별 졸업자현황을 보면 인문대학 8개학과 졸업예정자 3백5명중 2백90명이 학위를 취득했으며 법정대학 2개학과(야간강좌부 포함)졸업예정자 1백69명중 1백60명, 경상대학 5개학과(야간강좌부 포함)졸업예정자 3백27명중 3백17명, 사범대학 11개학과 졸업예정자 1백83명중 1백65명, 농과대학 5개학과 졸업예정자 1백97명중 1백83명, 해양과학대학 4개학과 졸업예정자 1백64명중 1백61명, 공과대학 6개학과 2백51명중 2백35명 자연과학대학 5개학과 2백51명중 2백35명이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학적과에 따르면 8개 단과대학에서 졸업학점 미달, 졸업시험 불합격 논문미제출등의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모두 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졸업가능학점 취득 및 졸업불가사정에 대한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91학년도 졸업생중 학업우수자에 대한 총장상 및 학장상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이옥순(사회학과) 신홍균(야간법) 고용식(야간경영) 윤지영(사교) 손경용(농경제) 김동주(해양학과) 고연순(수학과) 강길선(화공)

△학장상=김경희(국문) 임정자(영문) 백광녀(독문) 함양숙(일문) 김은영(사학) 강미란(사회) 오신희(음악) 좌경희(미술) 문병철(법) 정동익(행정) 양재근(야간법) 고영민(야간행정) 김양수(경영) 오경애(관광경영) 허예순(회계) 오치진(무역) 감순후(경제) 고명자(야간경영) 김양순(야간회계) 양진영(국교) 허정희(영교) 김현주(사교) 차은영(상교) 조선희(국윤교) 강일심(수교) 김미숙(과교 물리) 고승아(과교 생물) 김향림(가교) 오동준(체교) 강영진(농학) 최승국(원예) 이병임(축산) 한정권(농화) 진성봉(농경) 이창헌(어업) 강란(증식) 허재석(해양) 김연희(해양환경) 서군오(물리) 홍지희(생물) 박미숙(화학) 허용순(식품영양) 이향란(수학) 김형미(식품공) 박군선(기관공) 함영희(통신공) 양기탁(에너지공) 박수경(정보공) 정영준(전자공) 오현옥(전기공) 한은희(화학공) 허은자(산디).

◇지난 2월18일 오후 3시 본관 상황실에서 있었던 '92학년도 1학기 총동창회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관련기사 2면)**

교원임용고사에 56명 합격

제주지역 30명 서울19명 경기4명등

지난 91년 11월24일 실시된 중등교원임용고사에서 우리학교 출신자들 가운데 5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월19일 현재 각 학과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임)

지원지역별 합격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국어:김지윤(국교 91졸), 양진영(국교 92졸), 양영자(국문 89졸) △수학:강은숙 오민숙 이옥경 송미혜 송은정(이상 수교 92졸) 허향복(수교 91졸) △영어:현진 고명희(이상 영교 91졸), 신경희(영교 90졸), 한인순(영문 90졸) △물리:고민정(과교 92졸), 김태우(과교 87졸) △생물:김미정(과교 89졸) 강정아(과교 91졸) △국민윤리:양인숙(윤교 88졸) 김성은 김진미 박미정(이상 윤교 89졸), 김병성 김지영(이상 윤교 92졸), △상업:강명자(상교 90졸), 임경선 고문호 강은자(이상 상교 91졸), 김복자(상교 92졸) △일반사회:김항수(사교 91졸), 양순임(사교 92졸)

▲서울지역 △국어:김미숙 전영희 고경숙 김형선 현정애 강철수 성장미 허혜경(이상 국교 92졸) △수학:고영지 강일심(이상 수교 92졸) △물리:김란희(과교 90졸), 한은주(과교 91졸) △영어:문정주(영교 91졸), 김소영(영교 92졸) △상업:고애진(상교 89졸), 차은영(상교 92졸) △일반사회:현소영(사교 88졸) 홍영아(사교 91졸) △미술:김양진(미술 90졸)

▲경기지역 △수학 문경란(수교 92졸) △일반사회:김미란 송순선(이상 사교 89졸), 홍윤숙(사교 90졸) ▲인천지역 △영어:강봉수 김유미(이상 영교 92졸) △수학:고경희(수교 92졸).

대학발전기금 기탁현황

(접수순) '92년1월3일~2월17일 현재

소속 및 직위	성 명	기 탁 액	비 고
교무처 교무과장	김 소 원	70만원	
박물관 행정주사	김 대 언	50만원	
제주대우자동차(주)대표이사	고 춘 호	1천만원	
해양과학대학 교수	정 상 철	50만원	
남영나이론(주)회장	남 상 수	총2억	
협성건설(주)대표이사	부 봉 하	1백만원	
재경제주도민회 부회장	이 윤 심	1백만원	
우주종합건설(주)대표이사	이 태 석	3백만원	
교육대학원 교수	이 완 정	20만원	
그레이스관광호텔 대표	주 인 석	1백20만원	
네슬레식품(주)부사장	이 치 섭	10만원	
농과대학 직원	김 상 기	50만원	
학생처 후생과장	김 명 섭	50만원	
도서관 정리과장	양 상 숙	30만원	
법정대학 서무과장	현 금 하	20만원	
출판부 직원	고 경 생	10만원	
교무과교육연구사	송 문 조	20만원	
〃 행정주사	강 성 진	20만원	
〃 행정주사	좌 익 수	20만원	
수업과 행정주사	김 태 일	20만원	
도서관 사서주사	양 대 옥	20만원	
후생과 행정주사	문 경 남	20만원	
교무처 학적과장	김 남 식	50만원	
시설과 전기기사	양 태 수	20만원	
총무과 행정주사	홍 희 동	20만원	
〃 행정주사	양 두 헌	20만원	
학적과 행정주사	장 도 헌	30만원	
경리과 행정주사	최 창 근	30만원	
수업과 직원	부 흥 진	10만원	
대학원 직원	양 인 실	10만원	
기획실 행정주사	한 승 희	20만원	
박물관 학예연구사	고 광 민	20만원	
현대건설전무	정 종 화	1백만원	
수업과 행정주사보	이 채 일	10만원	
도서관 수서과장	황 성 원	50만원	
도서관 열람과장	진 춘 배	50만원	
〃 사서주사	강 일 호	20만원	
〃 사서주사	김 종 구	20만원	
〃 사서주사	오 성 종	20만원	
경상대학 서무과장	김 정 희	30만원	
농과대학 서무과장	이 재 훈	50만원	
〃 행정주사	김 형 수	20만원	
학생과 교육연구사	강 상 헌	30만원	
총무과 행정사무과	박 경 섭	50만원	
시설과 건축기좌	김 운 영	30만원	
〃 토목기사	이 영 화	20만원	
〃 기계기사	양 창 남	20만원	
〃 건축기사	강 수 철	20만원	
〃 건축기사	고 상 선	20만원	
〃 환경기사	고 익 만	20만원	
〃 전기기사	김 충 환	20만원	
학생처 장학담당관	문 천 탁	50만원	
〃 장학담당과교육연구사	현 영 남	20만원	
〃 행정주사	김 천 근	20만원	
소 계	54명	130.200.000	
누 계	233명	376.389.695	

△접수장소:본교 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접수방법:직접기탁 또는 우편및 전화 접수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54~2140, 2001, 2006으로 하시면 됩니다.

돌하르방

孟母三遷之教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열을 얘기할때 후한서(열녀전)에 기록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를 흔히 떠올릴 것이다.

이에 얽힌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맹자의 어머니와 어린 맹자가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을때, 맹자가 상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놀자, 이곳에서는 맹자를 교육하는데 해가 되겠다고 생각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시장근처로 집을 옮겼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자가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놀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도 맹자의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겠다고 깨달은 맹자의 어머니는 학교근처로 집을 옮겼다. 이곳에서의 맹자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제사상을 차리는 법,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행동하는 광경들을 일일히 흉내내면서 노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린시절의 맹자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열이 후세에도 기리 남는 맹자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열은 이보다도 더욱 강하다고 본다.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자식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해주며 격려를 해주었을 것이다. 때로는 자식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며 눈물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님의 덕택에 지금 이 순간에 1천6백46명의 졸업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영광도 안게 되었다.

16년이란 긴세월동안 아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하나만을 바라보며 부모님은 갖은 고생을 다했을 것이다.

우리가 대학의 학문을 배우며 힘들었던 것 보다도 수백배의 고통을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며 참고, 또 참았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든 아픔을 이제는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부모님께 학사모를 씌워 드리며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의 얼굴을 앞으로는 환하게 해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졸업생들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다른 은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졸업생들의 4년동안 학문을 배우며 생활했던 제주대학교, 여러분의 모교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이다.

이에 "어떻게 보답하느냐"고 반문하는 졸업생들도 더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자기가 맡은바 임무에 정열을 쏟으며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모교에 대한 보답인 것이다.

학적이란 아무리 자기가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자신의 영원한 꼬리표이다. 자신의 일부인 이 학적을 위해서 졸업생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 모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회요소요소에서 대학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다.

끝으로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은 이순간부터 부모님과 모교의 은혜를 잊지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2의 삶을 성실히 개척해 나아가주길 바란다. 【繁】

(최고경영 고급관리) 과정수료식 거행

오는 22일 115명 졸업생 배출

경영대학원 제2기 최고경영자과정과 행정대학원 제1기 고급관리자과정 수료식이 김형옥 총장, 김범국경영대학원장, 한창영 행정대학원장 및 학내외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법정대 중강당에서 거행, 1백15명(최고경영자 65명, 고급관리자 5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게 된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에서는 65명의 원생이 졸업하는데 이날 수료식에서 윤태현(도의회의원) 원우회 회장·강창호(인성장학회회장)원우회 고문·고연수(유토피아호텔사장)원우회 운영의원에게 표창패가, 오시홍(창원산업감사)씨 등 15명에게는 공로패가 각각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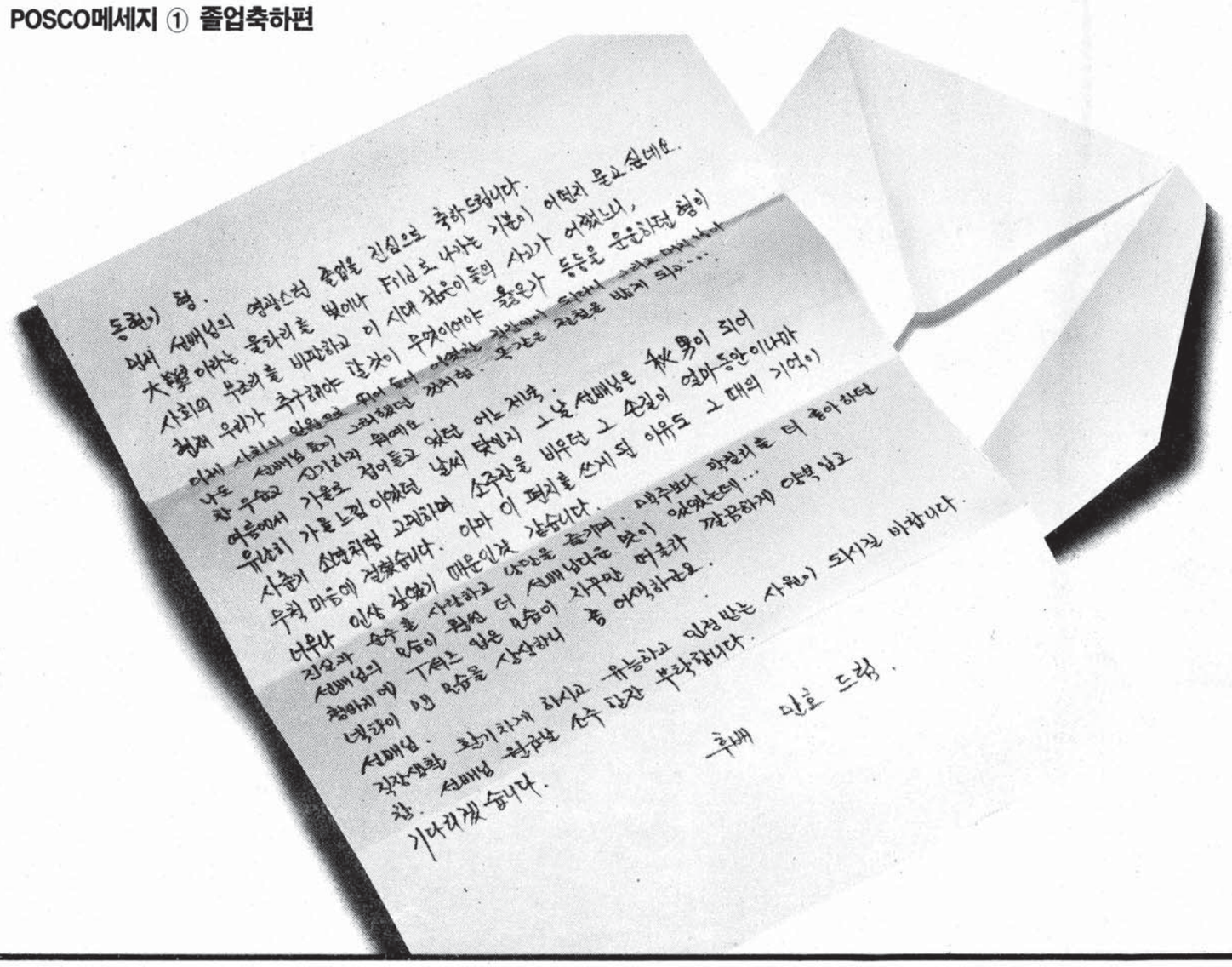
한편 올해 첫 졸업생 50명을 배출하는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수료식에서는 김길웅(도의회 의원)원생회장·장영배(국제호텔 사장)수석부회장·김영찬(엘칸토사장)총무에게 공로상이, 장영배·이정충·양재동·김영찬원생에게 학업우수상이, 장응모원생에게 최우수논문상이, 김중근·강정흥·한창조·송두금·전신권원생에게 우수논문상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 홍창수(원신 대표이사)씨는 경영대학원에 세계대백과사전 1질(30권)을 제2기 최고경영자과정의 오시홍씨는 1백50만원상당의 컴퓨터를 기증했다.

본 사 사 령

수습기자 김용철(수의1) 2월20일자로 기자에 임명

POSCO메세지 ① 졸업축하편



만호야 고맙구나

뜻밖의 너의 축하편지 고맙게 받아 보았다.
이런 후배를 둔 나는 참으로 행복한 놈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취직문제, 장래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때 자네를 만나 술 한잔 한것이 그렇게 까지 가슴에 와닿았는지는 몰랐구나.
秋男같다고? 이런 말은 처음 듣는구나. 그렇게 분위기 있게 보였나.
그 때의 고민, 번뇌가 속이 되어 지금의 열매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지.

글쎄? 사회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
자신를 가꾸어 완성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할까?
직장이라는 것의 몸을 빌어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있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

무엇보다도 낭만을 찾으려 헤매다니고 순수를 갈구하던 우리의 젊은 시절을 다시 느낄 수 있게 자네를 만나야 겠네.
첫월급 타는 날, 우리 찐하게 한 잔 하자구.
그 때 우리 남은 얘기 하기로 하고 이만 접겠네.

동현선배가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社說

이상주의자가 되길

— 졸업생에게 주는 글

'20대 나이에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가슴을 의심하고, 40대 나이에 현실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지능을 의심하라'는 경귀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현실사회의 경험이 별로 없고 주로 상아탑적인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사회의 부조리 현상에 대하여 직정적인 비판과 거부를 보낼 수 있고 현실개혁의 높은 이념을 품을 수있음에 반하여, 사회현상을 일으키는 복잡 다단한 현실구조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게 되는 중년 나이에 들어서면 미숙한 현실개조의 꿈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경계하게 된다는 뜻이다. 각자의 일생중에서 가장 이상주의적인 대학시절을 끝내고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갈등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에대한 몇마디 충언을 전하고자 한다.

대학졸업의 영광과 사회진출에의 불안감으로 해서 매우 들떠 있을 졸업생들의 심중에 우선 들려주고 싶은 말은, 대학시절에 지녔던 그 순수한 꿈과 이상을 되도록 오래 견지하여 달라는 것이다. 학생시절에 현실개혁의 높은 꿈을 구가하던 이상주의자가 각박한 사회의 모진 세파에 휩쓸려 나약한 현실안주와 퇴영의 길로 타락하거나 혼탁한 부정부패의 무리에 가담해 버리는 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 대학의 면학풍토를 황폐화시킬 정도로 극열했던 대학생들의 데모열풍을 바라볼 때에도, 비록 그것이 아무리 비생산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어도 적어도 그들의 가슴속에 들끓는 정의구현의 뜨거운 열정 자체는 고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미래사회에의 희망을 갖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다음으로 졸업생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그 근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고귀한 이상주의라 할지라도 적절한 현실감각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구체적인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무력한 환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계급적인 불평등을 타파한다는 사회주의 이념도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취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대역사의 현장에서 그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임금투쟁의 노조운동은 그것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국산품의 국제경쟁력 상실이나 일반 국민의 노동기피현상등 한없이 복잡하고 난감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학생들이 부르짖는 아동중심과 개성신장의 참교육 이념조차도 학생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선진 과학과 기술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폐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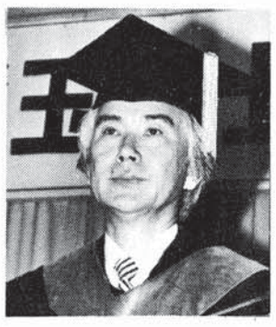
현실과 이상은 역사발전을 추진시키는 양쪽 수레바퀴와도 같다. 이상이 없는 현실의 역사는 발전이 없지만 현실감각이 결핍된 이상은 무력하다. 졸업생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녔던 고귀한 꿈과 이상이 역사발전의 진실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엄연한 현실구조를 냉철하게 인식하는 고도로 세련된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濟大漫評

◇눈물의 사연도 모르면서…

□'91학년도 學位授與式 식사

지적 탐구정신 견지해 잠재능력 발현 시켜 나가야



總長 金 瀅 玉

올해는 우리대학교가 開校 40週年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40년의 우리대학의 歷史를 뒤로하면서 졸업생, 여러분에게 學位를 授與하는 오늘 졸업식전이 더없이 커다란 史的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울러 이 式典에 참석하신 貴賓, 학부모님, 제대가족 여러분의 祝福이 이 졸업식의 의미를 더없이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生涯에서 가장 의미있는 날로 기억하게 될 사람들은 이 졸업식전에서 學位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굳굳하게 학문연구에 精進해온 여러분의 知識에의 열정과 면학의 의지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었던 知識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知識을 創出하고자 하는 産苦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더 나은 理念들을 現實에 實現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고뇌에 찬 사색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知識人으로서의, 오늘의 여러분으로 성숙시켰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 社會속의 知識人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탐구하고 모색하고 실험하는 학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의 方向과 의미를 제시하고, 우리를 이끄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지워집니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또 다시 여러분 스스로를 완성에로 상승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社會와 知識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大學에서 찾은 知識과 획득한 가치는 곧바로 사회속에서 發現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회생활속에서 經驗을 쌓으면서 점차 발현될 수 있는 潛在的 發展可能性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도 참신하고 彈力性 있는 知的 探究精神을 계속 견지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無限한 潛在能力을 발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의 기쁨에 머물거나 오늘까지 도달된 성숙의 의미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의미와 정신과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意志와 자세에 따라서 知的으로 완성될 수 있는 희망찬 未來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 미래는 졸업생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현시키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보이고 있는 물질가치의 지배적 경향, 이해집단간의 대립, 價値觀의 파행현상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도 價値觀이 도치된 사회에서는 사회전체의 파멸을 초래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실에서 젊은 知性人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社會에서의 실무적 知識이나 技術과 아울러 事物과 世界에 대한 바른 認識과 判斷能力, 현실에 대한 올바른 識見을 갖추는 일입니다. 慣行이나 慣例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知識과 識見에 따라서 결연한 의지로 잘못된 慣行을 改革하는 革新意志를 가질때 우리 사회는 쇄신되고, 영속되는 생명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校門을 나서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人間社會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사회의 價値觀의 파행현상이나 道德的 虛無主義등은 실로 國家社會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전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고 좌절한다면 未來에 대한 전망은 전혀 없어집니다. 人類文明史의 유구한 과정에서도 시대마다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대마다 이러한 사회현실을 슬기롭게 克服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다음시대로 歷史를 發展시켜 온 것입니다. 그런 觀點에서 볼때 우리사회의 심각한 현실 문제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歷史的 召命課題인 동시에 21세기의 새시대를 先進文明國家로 형성하려는 우리들이 맞서 해결해야 하는 課題입니다. 人間이 그 精神的 활동으로 歷史의 여러시대를 難關속에서 열어 온것처럼 우리들도 당면하고 있는 여러 課題들을 우리들의 정신과 예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갖고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우리가 스스로 신뢰할 때 우리들이 未來는 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진리의 문밖에서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는 오늘로서 끝난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生涯에 걸친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事物을 바로 認識하는 客觀的 精神과 넓게는 人間의 座標를 드러내는 사상적 배경을 깊게 연구하여서 眞理앞에 謙虛하고 不義 앞에는 과감히 맞서서 여러분의 生涯가 진정 고귀한 目的에 바쳐질 때, 우리의 존재를 주재하는 自然의 섭리는 여러분에게 內面的 풍요로움을 내려줄 것입니다."

親愛하는 졸업생 여러분, 人間의 知識과 技術은 人間을 救援하는데에도 쓰이고 滅亡시키는 데에도 쓰입니다. 制度는 사회를 발전시키게끔 운영될 수도 있고 사회를 정체시키도록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힌 知識과 技術이 어떤 目的에 쓰일 것인가, 여러분이 管理하는 制度가 어떤 精神으로 運營될 것인가, 여러분의 生涯가 무엇을 위하여 바쳐질 것인가, 그 目的, 그 精神, 그 理想이 高邁하냐 低俗하냐가 오늘 擧行하는 學位授與式의 價値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아무조록 眞理를 위하여 강인한 精神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바라며, 여러분의 前途를 肅然한 마음으로 祝福합니다.

無論有說

만 남

박 양 문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가 인생의 장래를 좌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 즉 처녀와 총각의 만남, 선생과 제자의 만남, 양반과 하인의 만남, 배와 항해사의 만남, 의사와 환자의 만남, 사장과 사원의 만남, 운전수와 손님의 만남,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 등이 그것이다. 다음의 몇가지 사실들을 예로 생각하고자 한다.

1. 타골과 거지의 만남

인도의 시인 타골이 영국에 갔을때, 런던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화 한닢을 주고 계속 길을 가고 있는데 거지가 뒤에서 부르기에 돌아보았더니 '거스름돈' 받아가지고 가라는 것이었다. 이때 타골이 말하기를 "영국은 밉지만 사람은 신사로군"하고 말한 것이 영국을 신사(紳士)의 나라라고 부르는 시작이 되었다니, 타골과 거지의 만남이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2.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

영국의 한 소년이 여름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시골로 놀러갔다. 더운날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데 발에 경련이 나서 익사하게 된 것을 부근에서 일하던 한 시골 소년이 비명을 듣고 달려와 구해주었다. 그 영국 소년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 소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오게 했다. 그 소년은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재산이 많은 영국 소년의 아버지는 그 시골 소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시골 소년은 너무 감사하여 의학연구에 몰두하여 1928년 페니실린을 발명하였고, 1945년 노벨의학상을 받았으며 작위까지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경(Sir Alexander Fleming, 1881~1955)이요, 영국의 소년은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1874~1965)이다. 처칠이 세계 제2차대전 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소련 수상 스탈린과 회담하러 갔다가 폐렴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때 그의 친구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고침을 받았다.

처칠이 페니실린을 발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받은 사랑의 씨를 다시 그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주어 결국 플레밍으로 하여금 인류를 질병(결핵)에서 구하는데 큰 기여를 한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

3. 항해사를 잘못 만난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14일 밤 세계 최대의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횡단의 처녀 항해를 하는 중에 캐나다 동해안에 있는 뉴우 펀들랜드섬 부근에 이르기전 빙산을 조심하라는 전보를 다섯번이나 받았다. 여섯번째 전보내용은 "빙산이 떠내려오고 있으니 내다보라"는 것이었다. 이때 타이타닉호의 항해사는 "닥쳐, 나는 바쁘단 말이야"라고 송신했다.

그후 정확히 35분후 그 호화여객선은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거대한 빙산과 정면 충돌하여 2천3백40명의 승객들중 7백5명의 부녀자들만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고 1천6백35명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때 그배의 선장은 "하나님 자신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 배가 십리도 못가서 물속으로 잠긴 것이다.

구름이 아무리 바람에 날린다 해도 인간이 활을 쏘아 흘을 수는 없는 법이요, 인간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4. 티우 대통령과 월남 국민의 만남

월남전이 치열했던 1975년 당시의 월남 대통령은 티우, 그리고 수상은 공군참모총장이었던 32세의 키수상이었다.

당시 키수상은 만약에 대비해서 자기 집 마당에 늘 헬리콥터를 대기시켜 놓는다고 보도되었었고 월남전 패색이 짙어지자 티우 대통령은 금(金) 2천6백kg을 전세기에 싣고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도망한 다음날 사이공의 함락으로 월남의 역사는 끝이 났다.

그렇게 엄청난 금을 긁어모으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국가의 패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상을 종합할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재론의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삶이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같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책임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농학과 교수·대학원장

인사광장

法政·經商大학장선출

법정대학장에 鄭鎭午교수
경상대학장에 金文琯교수

법정대학장에 정진오(행정학과)교수, 경상대학장에 김문관(무역학과)교수가 각각 지난 2월 6일과 12일 소속단대교수직선에 의해 선출됐다.

이번 학장선출은 현재 법정대 서경림(법학과)학장과 경상대 부종철(경영학과)학장의 임기가 오는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써, 신임학장들은 94년 2월말까지 2년간 학장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학장의 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진오 법정대학장 △63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77년 제주대학교 개발행정 전공 전임강사 △82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 △88년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무과장 △現 행정학과 교수. 〈사진左〉

▲김문관 경상대학장 △61년 제주대학교 상학과졸업 △64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수료 △79년 무역학과 부교수 △84년 무역학과 교수 △88년 제주대학교 도서관장 △現 무역학과 교수.

장학금 5백40만원 전달

지난18일 총동창회서

우리학교 총동창회(회장 양성후 법5회 세기건설회장) 장학재단에서는 지난 2월18일 오후3시 본관 상황실에서 '92학년도 제1학기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고산(사회3) 학우등 9명의 학우에게 각 60만원씩 총 5백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고산(사회3), △법정대=서은희(법학1(야)), △경상대=김의철(무역3), △사범대=오광주(과교3), △농과대=강해석(농화학3), △해양대=고동필(해양환경3) △자연대=문윤주(수학2), △공과대=강인신, 고수복(에너지공1).

여러분의 영광스런 卒業을 축하합니다

會長 梁 性 厚

常任副會長 高 永 琓

副會長 梁 奉 圭　副會長 邊 聖 根　副會長 金 泰 煥

指導委員 金時顯 金仁卓 全昌壽 玄化珍 康昌炫 高喆洙 金順五 金榮敦 金燦洽 金昌辰 金泰玳 文在錫 徐成玉 申斗奉 梁東羲 梁重海 李君普 玄容駿 黃彦澤 康泰淳 夫宅煥 韓昌榮

指導委員 邊萬根 李致根 金順澤 吳春卓 康昌洙 姜通源 金潤琪 申溶俊 左東日 康楨殷 趙明哲 玄鶴淳 白子勳 金鍾培

事務局長 金武昌

企劃理事 文鍾彩 總務理事 高庸文 財政理事 梁奉鎰 組織理事 梁敏弘 文化理事 金昞澤 涉外理事 韓康洙 事業理事 康共弼

獎學理事 夫萬根 女性理事 夫晴子 體育理事 張大建 弘報理事 李文敎 監事 金性杓 〃 李旭珩 〃 高昌實 理事 高應三 〃 姜柄燦 〃 金志勳 〃 申守容 〃 申弘湜 〃 吳海鍾 〃 金暎殷 〃 梁時旭 〃 許順七 〃 吳勝治 〃 梁淳琇 〃 姜喆周 〃 梁眞濠 〃 吳光協 〃 許仁玉

理事 玄商鍾 〃 咸元宗 〃 高鍾健 〃 姜時玹 〃 高光秀 〃 金景錫 〃 韓允三 〃 康相鏞 〃 高翊朝 〃 金文琯 〃 金文玉 〃 金相秀 〃 金仁圭 〃 白元弘 〃 梁元赫 〃 李君先 〃 許大振 〃 金益洙 〃 高京旭 〃 白興官 〃 姜東三 〃 高南旭

理事 金昌顯 〃 文斗玟 〃 李明豪 〃 金明必 〃 文泰鶴 〃 吳現道 〃 趙南棋 〃 鄭順澤 〃 車柱弘 〃 金斗萬 〃 朴文基 〃 金泰興 〃 宋哲駿 〃 金南植 〃 高景澤 〃 愼浩根 〃 李時榮 〃 吳文儒 〃 許京孝 〃 康友淸 〃 金相哲 〃 金河宗

理事 金翰琳 〃 梁宇鎭 〃 梁哲豪 〃 宋升弼 〃 文斗吉 〃 徐庚林 〃 姜登好 〃 姜東植 〃 姜昌植 〃 金勝正 〃 金永澤 〃 朴卿久 〃 姜宗豪 〃 高宗彦 〃 尹良洙 〃 金昌準 〃 姜成昊 〃 徐斗玉 〃 高奉玉 〃 高有峰 〃 夫禧植 〃 金良順

理事 李文哲 〃 金榮俊 〃 鄭秉植 〃 姜永周 〃 高炅杓 〃 金永昌 〃 金榮洪 〃 金榮訓 〃 夫彰敏 〃 高錫根 〃 金守眞 〃 許益善 〃 趙城完 〃 金映大 〃 梁祚勳 〃 金洙賢 〃 玄光洙 〃 文榮燦 〃 姜榮峯 〃 金德男 〃 玄進五 〃 孫裕遠

理事 朴成七 〃 姜志勇 〃 金昌禧 〃 金富一 〃 張德支 〃 康東彦 〃 許香珍 〃 宋在倫 〃 高彰根 〃 金勝立 〃 金斗和 〃 玄英男 〃 梁永哲 〃 白文璨 〃 金斗元 〃 金勇作 〃 金仁培 〃 李志珩 〃 高性範

濟州大學校總同窓會

'91학년도 학위수여자 명단

대 학 원

▲석 사

△**국어국문학과** 김영희=李箕永의 初期 農民小說 硏究

양영자=濟州民謠 시집살이 노래 硏究

고은숙=황순원 장편소설의 갈등양상 연구—「나무들 비탈에 서다」「日月」「움직이는 城」을 중심으로—

△**경영학과** 고성돈=勞使協議制의 運營實態와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濟州地域의 企業體를 中心으로—

류제광=消費者의 製品購買行動에 미치는 準據集團의 影響에 關한 硏究—個人用 컴퓨터의 事例를 中心으로—

송성하=乘用車 購買者의 意思決定過程에 관한 實證的 硏究—濟州地域을 中心으로—

오정훈=호텔의 재고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제주지역 관광호텔의 식음료를 중심으로—

△**농학과** 강형식=濟州道 中山間地帶에 있어서 폴리에틸렌 필름 被覆 및 播種期 移動이 참깨의 生産性에 미치는 影響

△**원예학과** 문창준=藥劑의 種類 및 濃度別 處理가 林溫州의 貯藏性에 미치는 影響

김기택=한라부추(Allium taquetii)의 生態的 特性에 관한 硏究

△**축산학과** 고경래=Vituification Solution의 耐凍劑 組合이 凍結融解後 생쥐 受精卵의 生存率에 미치는 影響

김태욱=쥐에서 有機酸 生菌劑 또는 抗菌劑를 含有한 飼料의 給與가 腸內 尿素分解 酵素 活性 및 암모니아 生産에 미치는 影響

△**농화학과** 양영택=濟州土俗 좁쌀 약주의 釀造特性

이동은=親和性 크로마토그라피에 의한 大豆 β-amylase의 精製 및 特性에 관한 硏究

임한철=土壤水分 條件이 施設 柑橘의 品質 및 水分 스트레스에 미치는 影響

△**어업학과** 오만흥=濟州島 沿岸에 있어서 갈치채낚이 漁船의 水中騷音

양용수=小型漁船의 騷音에 關한 硏究

김용주=민꽃게 통발의 構造와 浸漬時間에 따른 漁獲 性能

△**해양학과** 강순석=제주해협 표층 퇴적물의 특성

△**생물학과** 김기옥=제주먹초파리(Drosophila sp.)에서 호르몬에 의한 卵黃 蛋白質 合成의 調節

송흥선=濟州島産 참나무屬 數種에서 葉의 標高別 變異와 毛茸形에 關한 硏究

한태완=Agrobacterium rhizogenes에 의해 誘導된 Atropa belladonna 毛狀根의 培養과 Tropane alkaloid의 成分에 관한 硏究

△**식품공학과** 오명철=魚類 및 肉類中燒 N-nitrosamine 含量 變化에 관한 硏究

△**기관공학과** 조성배=RANDOM 振動荷重을 받는 構造物用 材料의 疲勞破壞에 대한 基礎的 硏究

박경석=炭素纖維強化形 複合材料의 機械的 性質에 미치는 水環境影響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강승후=家族體制에 대한 子女의 知覺과 情緖的 不適應行動의 關係分析

△**국민윤리교육** 한치익=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와 權力承繼에 關한 硏究

오승용=KANT의 도덕법칙에 관한 연구

△**사회교육** 김자현=濟州道 中·高等學校 學生의 政治態度發達에 관한 硏究

△**생물교육** 강정심=제주도 도요目 分布에 관한 연구

김추식=소라로부터 Vibrio屬 細菌의 分離 및 特性

△**체육교육** 오경규=海女의 作業前後 年令別 血液 成分變化에 關한 實驗的 硏究

인 문 대 학

◇국어국문학과

김홍재 장두성 이동원 고병철 박재성 김성대 정용문 현충렬 박길훈 허문정 강충민 조은영 김경희 신도철 현미경 김순지 오애경 오경은 오근선 오상희 김애심 강유미 김연희 오명자 강경미 오현주 송승희 정향미 김미량 신경희 김옥분 강은정 김현정 이미숙 홍미진 고희숙 임지연 강명임 강명화 김영미 김정희 양효선 부은실 이재숙 이명진 고능수(소계:46명)

◇영어영문학과

강상윤 현학주 오상석 변기돈 오권남 강주리 양희금 양현숙 강연희 좌연배 홍금실 채인숙 강이경 김인숙 김영아 백승희 박영미 강윤실 부향순 박지인 백미선 김희진 문선주 현영미 김미애 김미래 김명자 김혜순 임정자 김은아 허응순 강혜경 오미영 김연숙 고수라 박정미(소계:36명)

◇독어독문학과

김성훈 김영석 오경록 고성진 안정현 문유경 김신옥 최숭진 김은희 강정애 박정연 김삼향 오영아 고경희 강혜정 김명선 한혜정 김진아 김지숙 김금순 문민실 신행선 김은정 문미영 김진량 양정금 오영희 장선희 백공녀 송일순 고금자 고순덕 나혜은 김순희 오명금 이은정 문봉철 강인정 이정희(소계:39명)

◇일어일문학과

강창효 오경환 고형권 고용진 부용범 최진호 김소은 문경희 송영옥 현은림 함양숙 임경희 홍영희 김인경 강실임 김은영 김성우 이정화 송은영 강은숙 문우순 현정인 고정신 김미정 김해순 이애경 좌현수 이영자 임영산 강미라 김효정 양채열 강향숙 김순미 현정미 오유순 이진숙 문정순 강미란 고정희 송은선 허희숙 송순일 유미화(소계:44명)

◇사학과

강성호 조동진 고훈범 이병계 송성주 박완종 이승배 고영희 고경택 강영순 김미선 송명아 고금희 고수미 고연희 김미량 김민자 김정향 김형미 문영자 송경도 김은영 양리옥 양희정 현양순 김성염 양은심 김선양 김미라 고수현 김숙자 오수은 오수정 문유경 이은영 이은숙 장옥영 정인숙 이은경 박성미(소계:40명)

◇음악학과

이미경 강혜영 강순열 고혜진 이민숙 최명자 강선희 김경미 이은정 오신희 현 미 양승미 이보연 정명희 고은경 임경숙 김은영 김은희(소계:18명)

◇미술학과

유창훈 홍영지 고미경 이미순 김양선 김선희 박순민 오미순 문성애 양동훈 고명희 김혜숙 고지연 박금옥 전민숙 박춘호 이창현 송맹석 홍성석 고혁진 좌경희 고경애 백연림 고미경 김미정 양해순 양윤실 한미정(소계28명)

◇사회학과

강미숙 고미경 강미선 양창옥 허지원 오은주 한현진 양명희 고미경 고봉기 이옥순 김길숙 강유옥 김희경 오미란 고인효 윤미라 강미란 임소연 김현숙 허순하 김이성 문혜숙 현유월 고민정 이경이 강정순 허인실 신미경 이맹숙 김종범 이경용 현갑부 김진국 현동관 이창균 고영기 김은정 이수주(소계:39명)

법 정 대 학

◇법학과

김형준 이경배 강문식 고종한 문대림 김동원 김동호 문성필 김명범 김창보 강영식 김용철 고택영 임영근 현철준 이창학 정광석 오문석 염행만 김형준 장원요 김유성 김창범 이동우 임호철 송상훈 강명도 이경협 원민혁 문병철 김은영 부군찬 고성은 이광철 이숙자 강선미 김경숙 양윤영 고혜림 강남희 이정희 고유경 박경숙 현영신 홍영화 안용훈 김선웅 송수자 고범용 (소계:49명)

◇법학과(야간)

이상방 조경우 강윤종 윤평민 김희정 문필복 김동수 이용석 부성철 양용호 송미혜 양은범 양제근 양수복 홍성균 강영미 김미옥 김용진 강창호 강옥신 김홍우 신흥균 김지연(소계:23명)

◇행정학과

김성훈 이창규 강영근 양용혁 한창협 김태현 김경학 좌기봉 김상민 이남철 진유신 김우현 양정윤 홍수민 양태녕 전흥균 강상호 박용진 박효석 김창욱 홍성민 문창부 양창원 고재욱 김정환 김경모 김희찬 허 주 고영동 강경호 양우창 정동익 전익현 이승룡 강민봉 김성열 김행석 문승철 고택수 강정숙 강경철 김봉희 김재형 이금희 강희경 장성민 김효선 이경림 이란화 강영희 고희정 이은미 부 현 홍윤정 양미량 김진영 오성익 양순아(소계:58명)

◇행정학과(야간)

남희섭 김영수 양필성 이동근 이상진 김호현 허경돈 고성종 이창건 부철환 양정원 김용철 김진규 정태영 고혜정 고옥자 오상철 장문봉 김정아 강정열 한봉순 김승배 김양순 고영민 현승용 양영숙 양은숙 김경석 박충원 신면식 (소계:30명)

경 상 대 학

◇경영학과

양원재 강영규 김남문 현용택 고병철 홍원형 이동훈 고원진 김익형 오원혁 신완철 오병윤 양성철 김종필 이혁찬 박진서 강창협 박동준 오창보 김용희 양영관 문창홍 홍성보 김해봉 고서용 김민철 오상훈 강봉민 김철범 홍재영 이광택 고석봉 김재범 부성환 고창학 김성관 김희삼 양완수 양윤석 유건택 이홍철 고광림 홍애자 정선희 강경민 좌금정 고숙희 김유경 이승철 김영미 김양수(소계:51명)

◇경영학과(야간)

임공서 박근석 강병수 진병구 김영호 이영철 홍원택 문종규 오창일 김맹문 김순범 진명훈 부상석 고용식 박영도 성상운 고재봉 김광흡 송재훈 김성수 김명희 이정희 김수남 김순정 김년자 송순희 고순덕 고명자 이병원(소계:29명)

◇회계학과

김영근 양문정 김인철 김 철 고승흥 김경보 정용배 이영수 변철수 김흥성 진인철 김유철 조광준 김영범 윤창식 조성희 김세전 김철희 강정흥 이영철 양대형 김명호 김라미 김효숙 차혜영 김영란 부현숙 유은영 채유경 이일선 허예순 오명미 김동희 한지희 박금진 현미순 이현정 김순영 현미숙 오정림 강미숙 강정혜 안영화 양공자 현숙희 안영미 이경재 이명자 김연정 김인순 이혜원 양유순(소계:52명)

◇회계학과(야간)

고명철 김남규 고창우 김성근 김창효 이남구 고창민 조 욱 고상호 박철완 한창협 김효진 문성흠 송영곤 안형희 이유심 강원석 양군길 원경숙 신은주 한수선 강은아 노성숙 박정미 최복희 홍성우 고경희 이희웅 김양순 고대생 (소계:30명)

◇무역학과

김정섭 강현호 허성철 박종혁 신명훈 박제성 송 완 이용남 현길남 진경식 한경욱 고기탁 좌승철 고성우 천승준 오치진 현영종 박기용 김남균 강두진 김태형 박영식 윤철구 이제원 한영택 이승엽 이영호 홍리경 오순선 김영선 이은자 김창남 김민정 손영재 현숙희 강은영 강양숙 고현정 김순실 허선희 김영지 고정화 송승현 김정림 박수연 서현택 강연욱 장정은 이은경 김이근 허소영 이희숙 강춘미 이근배(소계:54명)

◇관광경영학과

김기철 강율철 최해우 고재형 강정인 오경석 고윤기 고덕윤 양수원 진경수 오승철 김민수 강시형 박상진 김명철 김봉실 김미영 고호정 김용미 장희경 이현주 김명선 강승철 강효숙 오경애 강금자 윤아미 송지연 부윤심 서인숙 현영숙 김태희 문윤선 현미순 부혜경 홍은숙 김경실 강은희 고영희 오경여 이현경 김진희 조용일 서성웅 왕옥해 (소계:45명)

◇경제학과

박승룡 양인호 문선관 김태수 강동원 조재호 김태현 고영대 오창범 김성범 송영주 강순후 좌호형 안필주 김명관 양태환 김호영 오충석 임철원 김형도 김영준 조철범 김택균 김병석 변성환 이승철 김창범 윤형석 정태관 허 정 박영선 조정일 박명구 김수진 고승희 김정희 김혜정 이경렬 이경미 김정숙 박미희 이정심 허금란 송영심 부경자 고우순 김미송 박선희 강영희 김희숙 문인숙 이경은 장근명 양영숙 오영미 김금희(소계:56명)

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강철수 이정심 문경순 현정애 문희현 김민숙 김성숙 김형선 양진영 전영희 고경숙 현영미 김미희 지미라 고로미 김성미 현혜정(소계17명)

◇영어교육과

진영한 현정숙 강동성 배혜정 오유미 강효심 송은숙 고은정 방은주 김유미 강봉수 신미성 부소영 오현주 허정희 현은숙 강 진 김소영 박재호 현성아 (소계20명)

◇사회교육과

김상현 양영희 오희자 허금자 윤지영 홍향순 김지현 강동희 이은순 홍영일 양순일 양현정 김미진 김현주 양은실 김진희(소계:16명)

◇국민윤리교육과

서성종 조운범 장승철 진선희 김은자 허은영 고숙희 조선희 조용현 고희숙 강여진 좌해경 김은희 김지영 김병성 (소계:15명)

◇상업교육과

신복심 김영림 진영재 양윤실 고명희 김미자 강수정 오순희 진민주 임지숙 차은영 김복자(소계:12명)

◇수학교육과

정태종 김영관 김경호 김영심 김태경 고영지 송미혜 강일심 문경란 홍영숙 고경희 송은정 강은숙(소계:13명)

◇과학교육과

양성도 이창운 조익현 오정관 송은영 부영림 최은미 고승아 오영림 김혜영 김희정 오승길 오영미 양혜림 이은주 김진수 양강효 고민정 고봉오 신태욱 조창범 임관욱 고민수 이수경 송미경 강정림 원복희 김미숙 홍희경 강문숙 홍보영 강미순(소계:32명)

◇가정교육과

황희주 최형숙 현혜원 전영주 허정미 송미경 이주희 이봉열 김향림 최진숙 현경림 강명란 강민아(소계:13명)

◇체육교육과

강동훈 고수민 이호식 김봉율 문영삼 오동준 황창구 곽동권 정순호 김응철 박창기 고상철 김재근 김춘만 문성호 정은선 허인순 강상식(소계:18명)

◇음악교육과

강창오 김원택 임재규(소계:3명)

◇미술교육과

고용완 양윤선 양경식 김태유 모상언 고봉석(소계:6명)

농 과 대 학

◇농학과

현승훈 부한진 김형철 김승현 손석증 김동준 김대선 김완율 김형철 한지연 김명석 최석관 박철옥 김승훈 장원혁 김태언 박용우 오관철 백승삼 김지영 박철민 김희숙 현영권 현금생 김승태 양동국 정승배 김동수 이인애 정승환 하경림 강영진 김성녀(소계:33명)

◇원예학과

김성준 윤수봉 김계남 이경준 양정익 박성길 송권승 현관식 전근범 부수옥 강종훈 허재준 강충효 최승국 오영조 강원환 오창원 한동만 강택용 정재순 고영호 문보경 강경희 오창규 김대생 오승훈 강태보 현정호 오은경 문애숙 강혜심 김윤순 박순영 안수진 김소희 김미행 양향숙 홍정임 이주란 김정애 문금희 오순영 부영희(소계:43명)

◇축산학과

문상보 손병우 고정대 차재준 김정훈 채영운 강정필 강경윤 이명우 김동진 양원순 양문욱 이용구 박재석 강대욱 정형오 오종환 김학수 부재호 김철구 김용태 이재문 강동진 한석범 김동희 이승훈 정상영 최경섭 이병임(소계:29명)

◇농화학과

윤영탁 박용구 양제원 허재흥 문종찬 강학수 홍재필 현창주 김현규 최호일 고봉진 홍창보 현승호 현경용 현태승 고승학 오봉준 김성학 전용범 오창진 한정권 양창윤 김성은 홍경완 신은협 김경훈 송상현 김근흥 오준호 한승갑 정혜화 이봉주 양태훈 고경숙 정문숙 김은정 조경순(소계:37명)

◇농업경제학과

송경남 양덕현 진성봉 오정환 차천신 김창남 박태현 김영준 문광호 김희진 이상후 박규남 오인우 윤상봉 윤덕환 김완근 안 식 김광주 한재균 양원석 김현산 강영입 한지임 부경주 최은경 고경희 김진희 김영희 강두경 고은영 양윤희 현정실 강영심 김미심 허인정 양숙인 손경용 신영완 양효은 김현실 조인숙(소계:41명)

해양과학대학

◇어업학과

허재영 제문호 이상협 김맹호 이창헌 오경민 라창문 진영만 송해성 김광호 강보선 서병수 장 진 이승탁 윤보철 김성현 부강석 김병엽 고영만 지학협 강성운 전용욱 강대익 현성수 김 훈 이기준 진영찬 이종헌 부영민 최영필 김승철 서영훈 고동완 하승영 김태균 현준식 이유철(소계:37명)

◇증식학과

김남호 박정찬 이성일 부상돈 김성훈 윤현필 김성훈 강대혁 서명배 황형규 현창헌 배희찬 김봉정 곽종주 나종암 정운태 홍인표 오상필 오동훈 고일봉 김근태 오경진 고민수 신용필 오순태 부용호 강봉호 고인구 고경호 이석부 박시정 김종수 박성민 오달규 문성돈 이애덕 공정은 강 란 최지영 임영란 홍금선 이미숙(소계:42명)

◇해양학과

정태복 장유종 한경군 김동오 고부남 허재석 오승호 이승택 김진성 이재우 정양흥 김성범 양진규 강형조 송영민 김성학 우차훈 오상홍 방수성 박승찬 고창국 김유철 김성보 김진희 신명환 문재선 고영준 황규업 표영실 홍성준 박정훈 김기범 변경재 박재상 한 신 이병석 김영호 김동주 홍화순 고방연 하은주(소계:41명)

◇해양환경공학과

강창봉 김희윤 이정팔 부경용 전상호 김형철 고찬옥 강봉래 김동환 함병희 양두호 송영철 김홍종 김성훈 양경하 이용철 임평재 안승운 현익현 양기봉 신봉현 임홍범 김대원 김은수 전상우 오바오로 박관석 문지환 김석보 김성조 송광덕 고인열 오순미 김연희 이경향 양경화 강성숙 김기조 김기조 김선자 강정미(소계:41명)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함성범 오명익 김여준 정경태 송태림 허철성 백상훈 김용득 김흥권 김창만 양철희 한권율 이승진 고종건 현명철 현상진 김재식 한예욱 서군오 강민수 서경희 강정석 부성은 강춘우 김종호 김순희 고유정 백루시아 고명숙 김희영 김희숙 고승희 김문선 김미애 김홍희 (소계:35명)

◇생물학과

고경철 허시행 강형석 고수영 고홍범 김창보 장 진 고창우 송호섭 송승협 김태연 박승주 김명성 이은주 문유미 고상희 오순자 강효선 고연의 김수연 박형미 김진미 한순경 강만숙 강연주 박은숙 최미경 강정윤 강순복 현혜정 진효숙 양복미 장경미 장보원 이소영 문숙희 허용순 이은화 김은아(소계:29명)

공 과 대 학

◇에너지공학과

유주형 정 철 김재량 김상봉 강승훈 한상수 홍경룡 황승찬 김종철 김상법 신재훈 박재환 허승남 김령미 변귀환 홍지희 김현미 문경신 안선희 권정희 오건영 김민희 김순향 곽은정 정성원 신성애 이영윤 김영미 차선미 김지영 박진희 김 건 강경미 송 미 강윤정 (소계:40명)

◇화학과

오 정 강혁준 오동원 최창문 이지은 변종욱 서미희 박은주 현순미 강은정 정인생 김은신 고명옥 박미숙(소계:14명)

◇수학과

최희봉 최은경 이향란 김진숙 오은희 이청수 김영숙 고배정 오인성 김연정 신금옥 현정삼 김희정 강미옥 고선희 고연자 고연순(소계:17명)

◇식품영양학과

강찬수 고경찬 강희병 김부한 김학조 양창철 이창학 고기호 양기탁 이광범 김영훈 김제헌 양성희 현익수 김영봉 안철범 강성범 강기혁 문수중 김석호 강미혜 현미영 강희경 강금선 김금자 김희숙 김미순(소계:32명)

◇식품공학과

이종협 강재은 김병주 김영규 김홍주 신상식 양수범 고상휴 정관우 문성만 고태일 조영완 이경용 조미숙 김효정 강연실 이방식 고정희 구덕조 김정희 고충석 홍혜정 서미영 김지숙 강청아 김형미 조유미 김수진 고은숙 고은숙 오명선 박애경 조정숙 고양은 김광숙 이인옥 오영미 김미진 양진심 김영혜 현양미(소계:41명)

◇기관공학과

한유용 김성환 이재평 김두환 강재택 고대송 김정용 양원영 김존필 김치희 김형길 현광철 양승렬 박군선 현영주 소창도 이상호 김학남 고성호 이병곤 문정모 강원태 변영호 송병술 임승호 김현국 조선재 강근봉 고봉준 김성구 강태익(소계:31명)

◇통신공학과

이창영 양성봉 강원석 강영철 김성만 고창휴 현행국 강병찬 김기만 현창무 강부식 고민철 이제헌 이동철 고임욱 김동범 신원조 지근성 오승헌 좌상훈 현은정 임용선 송만종 이상봉 송시경 윤미정 김동후 고영희 강임호 함영희 백윤정 강정은 고현주 강은주 남래경 (소계:35명)

◇정보공학과

김영철 김문규 이병훈 김경남 양행진 부의영 김경흥 이관우 양권우 오준흥 좌재봉 원민식 고영봉 김길엽 이문식 김경희 오충훈 정용민 송진언 이승철 박종훈 오미경 김수경 현미금 김정철 현경민 정원호 오정숙 강영애 송미정 고봉순 강은아 현경선 박수경 이정애 원성심 윤분다 송미경 부지선 조은경 (소계:40명)

◇전자공학과

홍성남 오경섭 고석건 이충남 현승도 홍성화 김성화 양영석 고희봉 하진수 박도영 정영준 양문호 양유정 김효의 이은영 서양지 조연희 강선희(소계:19명)

◇전기공학과

오현옥 현동주 고지호 김민철(소계:4명)

◇화학공학과

양정훈 김승건 한은희 한명렬 강길선 김옥연 강재길 김미숙 한경혜 조인숙 이신선(소계:11명)

◇산업디자인학과

현우준 고경남 김현애 이정자 문희라 문영미 좌은지 강옥진 김수연 강희영 박희경 이경은 허은숙 김민정 김은향 소현경 김유정 나진미 허은자 오영아 박선희 이경효(소계:22명)

제2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강경호=제주관광의 세분화에 관한 고찰

강공우=기업의 재무목표와 재무담당자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연구

강기천=한국의 노사분규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

강영태=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강유순=조직몰입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정숙=산업구조의 재편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방안에 관한 일조

강창호=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문제점과 근대화 방안

고갑봉=고임금시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고명수=동기 부여 이론에서 보상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고병주=엔지니어링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성흡=지방 예산운영의 발전방향

김세중=세계감귤산업현황과 농협판매확대 방안

김영언=기업경영에 있어서 광고의 역할에 관한 고찰

김용하=관광호텔의 경영관리 방안—제주지역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김윤석=제주지역 관광개발 현황과 개발방향에 관한 소고

김재남=제주도관광산업의 현황고찰및 그 발전을 위한 제언

김정남=호텔업의 구조적 특성

김창범=제주도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개발방안 고찰

김창조=한국적 기업문화의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김추영=지방화시대에 따른 시장·군수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

고봉규=사기와 리더쉽에 관한 고찰

고성민=조직개발의 특성에 관한 고찰

고연수=관광호텔 마아케팅전략에 대한 일 연구

고임순=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

고천우=제주도 농어촌 특산단지의 육성방안

고태선=한국노사관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고화백=감사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김경철=종업원의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연구

김두온=학교 교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화 방안

김성익=제주지역 관광토산품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김택주=한국적 노사관계의 확립방안

문대영=경영자의 리더쉽과 노사관계

문성휴=제주도 유통업의 실태와 현대화 방안

문수진=제주지역 관광토산품의 유통경로에 관한 고찰

문희중=관광조경계획의 절차에 관한 연구

박동광=제주도 관광농업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박형욱=제주지역 여행업의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백종열=제주시의 일식요리의 현황과 과제

부흥종=유통산업의 개방과 대응방안

서동흠=ABC분석에 의한 증점관리에 관한 고찰

송방택=농업협동조합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송연봉=산업민주화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신상범=직무스트레스의 증세와 그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안대영=경영조직에 있어서 리더쉽 고찰

안세영=임금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양경대=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양경호=부당자금의 공급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양정호=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관한 고찰

오시흥=제주권 여행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윤종열=호텔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윤태현=인사정보 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기백=갈등과 스트레스관리에 관한 연구

이길형=건전한 조직문화의 형성

이동춘=조직환경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명식=유통경로및 물적유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원진=경영합리화를 위한 동기부여 기법의 고찰

이택윤=제주도관광산업의 발전방향

이화문=건설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장태순=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한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정광윤=국제경제 질서하에 제주경제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찰

한동석=소비자의 구매동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석진=리더행동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허상수=경영자의 수요예측과 의사결정

현근식=MRP기법의 성공적 실행에 관한 연구

현창숙=제주지역 관광산업 마아케팅활동의 전략화 방안

제1기 고급관리자과정 수료자

오재충=한국기업의 노사문화 확립에 관한 연구
이성술=관광세 도입과 운영방안
장응모=청소년 습관 중독성 약물 오남용 실태와 그 대책
신철주=제주도정 방침의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
문영호=현행 토지공개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현섭=의료보험제도의 정착과 보험관계자의 역할
강정홍=지역사회발전과 지방신문의 역할
문인수=제주지역주민의 운동의 특징
김인택=양식 넙치의 건강도 점검 방법에 관한 연구
이정충=우리나라 묘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한욱=제주도 관광 개발에 따른 경관 보존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현만식=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상호 관계
오윤하=동기부여 이론과 전력에 관한 고찰
김대형=우리나라기업의 인사 고과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우남=Leadership 개발에 대한 고찰
김흥보=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
장재준=제주지역 사회에서의 경영인의 과제
이군선=행정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소고
한성담=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합리화 방안
이재현=제주도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상홍=제주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부만금=청소년 범죄와 그 대응방안
김중근=주차장 관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홍가윤=한국 노인문제 고찰
김유선=지방 자주 재원 확충 방안
송두금=서귀포 시민의 지역개발의식에 관한 연구
이도혁=지방화 시대와 소방행정의 발전 방안
송정언=건설업의 안전관리 정책과 경영인의 역할
김채봉=지방의원의 신분이동에 관한 연구
고경진=우리나라 자동차 대중화의 과정과 전망
전신권=우리나라의 법의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원대은=의료보험청구 업무 간소화에 대한 제안
고동환=전력 수급의 안정방안
나승호=제주도 화훼산업의 현황과 전망
장영배=제주지역 관광산업에서의 일반호텔의 위상과 발전방향
김길웅=제주도 관광개발과 제주도 관광협회의 역할 고찰
고한호=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예방대책
현태식=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훈=지역문화와 문화재 보호
양규식=근로청소년의 지도와 육성방안
한창조=도로교통의 개선방안
김영훈=제주도의회 구성과 도의원의 역할
양재동=제주관광개발에서의 사진업의 위상과 방향에 관한 연구
현광수=부동산중개제도의 정착방안
한용운=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과제
오성보=지역개발과 주민참여
김영찬=집단민원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호=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
현윤조=성산포 관광개발에서의 지역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우=제주지역발전과 주민참여 방안

□ 교정을 떠나며 — *학교당국에 바란다*

교과과정 하루빨리 개편

후배들 교육여건 개선해 줬으면

문희현 국어교육과

겨울의 흔적과 봄의 기운이 엿보이는 요즘, 학교는 92학번 새내기들을 맞을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자율과 민주가 살아있고 다른 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대학문을 들어섰었다.

돌아보건대, 대학은 자율적인 곳이지만 그 '자율'은 대학에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주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학생답게 낡은 것은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자주적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4년간 사범인들은 이 나라의 장래가 우리나라의 교육이 내 손안에 달려 있다는 자부심으로 올바른 교직관 확립과 참교사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87년 국가고시 철폐투쟁, 88년 발령쟁취투쟁, 89년 단기양성·종합대책안 철폐투쟁, 90년 10·8조치 거부투쟁등 사범대문동은 사범대인의 투쟁력과 단결력을 담보로 자체조직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범대인의 교육민주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현 사범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가 곪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썩어 문드러져 큰 수술을 요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고, 올바른 교사 양성과정과 민주적인 임용제도가 마련되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졸업을 앞둔 사범대인의 한사람으로 교사양성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학교당국에 두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비사범계 교직이수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사범대가 교직으로의 안정적 진출을 보장받지 못하고서는 사범대가 불릴 수 없다.

해방후 중·고등학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사범대학은 우수교원 확보필요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일정의 양성과정을 거쳐 임용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이후 이윤추구를 위해 급격히 무원칙하게 생겨난 사립 사범대와 교직이수자는 교원의 공급을 그 수요이상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여 대기하는 자가 몇만명에 이르고, 아예 교사로서의 꿈을 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다시한번 학교당국에 강력히 당부하고 싶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사범대에 들어온 학우들의 꿈을 좌절시키지 말라. 사범대를 나온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사립사범대의 난립과 더불어 사범대가 아닌 타대학에까지 교직을 이수시켜 문교·학교당국이 책임지지도 못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원래 비사범계 교직이수자는 현장에 필요한 교사이지만 사범대에서 그 과가 없어 양성을 할 수 없는 경우 타대학에 교직을 이수하도록 하여 필요한 교원을 공급받고자 생겨난 것이므로,(예를 들면 농업교육과가 존재하지 않는 사범대에서 농대의 모과에 교직을 원하는 학우에게 이수하도록 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범대가 특수목적대로서 위치지워질 수 있도록 비사범계 교직이수자는 반드시 제한되어져야 한다.

둘째, 사범대의 특수성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교직·전공교과과정개편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국어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학우들은 국문과와 별반 다를것 없는 교과과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고 교수님들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다. (이는 한 예일뿐 전 과의 교과과정개편의 요구됨)

그렇다면 사범대 전체적인 교과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학교당국과 학생회가 하나되어 행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4년동안 사범대를 다니며 교사에 대한 지향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꿈이었던가를 깨닫게 된다. 임용을 책임질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현정권하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학교당국에까지 무거운 책임을 돌리지는 않겠다. 다만 사범대는 참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지, 노예교사 혹은 실업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님을 명심해줬으면 한다.

사범대가 사수되기 위해서는 위에 제기한 비사범계 교직이수자제한, 교직·교과과정개편이 제대로 이뤄져야 함을 각인하며 우리 후배들은 이땅에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누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맺는다.

스승의 애정없음은 어찌해야 하는지…

관심은 어느정도인지 여쭈고 싶다

박재성 국어국문학과

교정을 다시 걷고 있으면, 낯설음으로 시작하고 때론 열정으로 사방을 내닫다가 결국엔 크나큰 아쉬움만을 남긴 채 사라져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처음엔, 생소한 자리마다 가슴 떨리는 긴장으로 대학을 느껴보기 위해 애쓰고 한창때에는 세상을 품 안에 안은 듯 삶에 진한 열정을 덧칠해댔던 시간들이 지금은 잔잔한 그리움으로 다가오지만, 오랜시간 애써도 걷히지 않는 무심한 사람들 사이의 벽은 돌아서는 내게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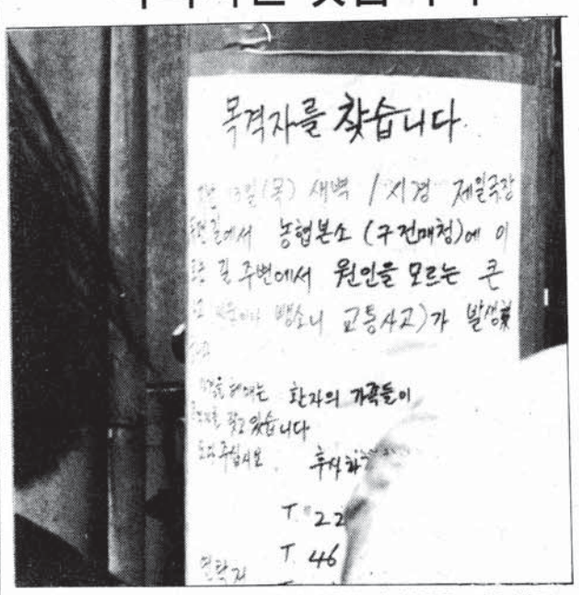
내가 느꼈던, 물론 지금도 느끼고 있는 대학이라는 곳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구속에서 자유롭고 스스로의 성(城)을 마음껏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자신이 쌓아 놓은 성의 주인이 되고 싶건, 아니면 문지기가 되고 싶건, 그건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철학일 것이다. 가장 현명한 판단으로 그가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인 것이다. 하지만 혼자만의 자유로 그 성을 쌓을 수는 없다. 풍랑에 쉬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탄탄함과 그 속에서 삶을 위한 건강한 설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에게서 그 방법과 철학까지를 터득해야만 할 것이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의 기예(技藝)를 잇고 자신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성철학을 보다 확고히 정립시켜 주길 원하며, 제자는 스승의 오랜 경험에서 진지한 삶의 태도를 읽어내고 탄탄한 성을 짓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제자가 그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고, 스승 또한 그 철학을 구태여 물려주려 하지 않는다. 제자의 못남은 자신 혼자의 못남으로 끝나지만, 스승의 애정없음은 어찌해야 하는지 정녕 하나를 위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쭈어 보고 싶다. 제자가 모난 돌로 섬쌓기를 하고 있을 때 스승은 둥근 돌만 굴리고 있고, 제자가 둥근 돌로 성을 짓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도 그저 멀리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리면 어쩌나 우려만 많고 어린 제자의 가슴 속 상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관성이 되어버린 애정없음. 스승의 성만 더욱 단단히 하면, 제자는 저절로 따라오겠지. 스승의 성철학만 견고하면 제자는 당연히 그 성을 위하겠지. 하지만 치사랑은 역시 힘든 것이고, 당신의 내리사랑도 볼품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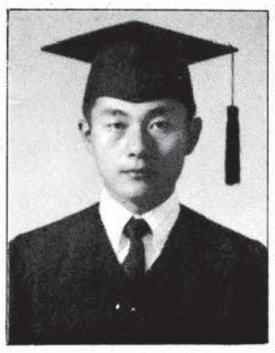
지금도 혼자만의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어떤 하나의 제자를 위해 따뜻한 애정으로 제자의 성쌓기를 바라봤으면. 그리고 조금의 여유를 빌어 그 제자의 이름이라도 불러 줬으면… 그러면 남은 후배들, 새로 시작하는 후배들은 나보다는 조금은 더 멋진 성을 쌓을 수 있을텐데….

고침 지난 1월1일자(제436호) 6면 '대학40년사 집필위원 위촉'기사중 △고명규(교직과) 교수가 집필위원 명단에서 누락됐으며 △'박규은(과학교육과)교수'가 '오만원(체육학과)교수'로 교체('91.12.31일자)됐기에 이를 각각 바로 잡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졸업을 앞둔 김종호(물리4)학우가 영문을 모를 사고로 숨져 가족들이 목격자를 애타게 찾고있다.



◇故김종호학우

지난 2월13일 새벽1시경 도로변(제주시 삼도2동 효성다방근처)에서 뇌를 심하게 다친 채 쓰러져 있었던 김종호(물리학과 4)학우가 길가던 행인에 의해 제주의료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6일 오전 7시 끝내 사망했다.

그는 13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오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측에서도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으나 뚜렷한 사고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어 김학우의 가족들은 '13일 새벽 0시 50분부터 1시사이 제일극장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주지사 부근에서 싸움이 나 교통사고 등을 목격한 사람은 제보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자보를 사고지점 부근에 붙여놓는 등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채 제보자확보 및 사고원인규명에 애를 태우고 있다.

김종호학우의 어머니 채애락씨(64)는 아들이 영문을 모른채 끝내 숨지자 "그애는 온순한 성격에 누나들에게도 말대답을 않는 아이라 누구와 싸웠을리는 없다"며 정확한 사인 구명을 요구하고 있다. 물리학과에서도 "평소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슬프고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사인이라도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경찰의 집중적이고 성의있는 수사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김종호학우는 오늘의 졸업식과 21일의 ROTC임관식을 앞둔 상황이라 의문을 남긴 채 사망한 김학우에 대한 소식은 주위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야라·我羅

○…새봄을 맞는 단비같은 소식
잠시 지지부진했던 대학발전기금모금운동이 이제 1주년을 맞으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
그간 이 운동에 참여를 주저해왔던 행정직원들도 방학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 학교 안에서부터 발전기금모금운동을 활성화시킬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교수들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금모금운동에 동참하여, 개교 40주년을 맞는 올해를 비약적인 학교발전의 해로 만들도록 제대인 모두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
○…학교의 병영기지화(?)
방학기간이라 조용했던 아랏벌이 갑자기 시끌벅적 해 아라자 그 원인을 알아보니.
요 며칠간 입단식과 입관식으로 분주한 학군단 후보생들이 연병장이 아닌 강의실·본관·학생회관 주변에서 구보하며 우렁찬(?) 군가를 부르는 등 교내를 온통 장악하고 있어 학교인지 병영기지인지 분간을 못 하겠다는 학우들의 푸념.
학군단이 마땅한 연병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생이 우선인지 학군단이 우선인지는 서로가 지성의 눈으로 냉철히 판단해 행동해야 마땅한 게 아닌지요.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좌우합니다.
서귀포시가 순간의 이로움만을 위한 행정사업을 펴 제주의 유물·유적을 아끼는 이들의 원성을 사고있어 그 이유를 알아보니.
서귀포시 하수처리장 신축확장시

교수님도 동참하세요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부문이 부실하게 작성돼,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커녕 하수처리장을 확장하려 하고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
당장의 이로움보다는 조상들의 문화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보다 나은 행정의 일면이 아닌가 해서 한마디.
○…조금만 신경쓰시면.
성적채점표를 기일내에 제출해 주지 않아 행정업무처리 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수업과에서는 교수님들께 모든 성적처리를 12월말까지 수업과로 제출해 주시도록 협조공문을 수차례 띄웠으나 일부교수들이 기간내에 제출해 주지 않아, 성적처리나 성적표 발부등이 연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모학우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레포트 제출시간 엄수하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성적관리행정이 조금은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있는 한마디.
○…율고 있는 지성
학내에서 잇따른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니.
컴퓨터클럽과 산학협동연구회 등의 동아리에서 컴퓨터·프린트기 등을 도난당해 율상.
새로운 직업전선에 뛰어든 물지각한 학우들의 장난인지 아니면 시내에서 원정 온 전문 도선생들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듯.
도둑질한 사람도 문제지만 교내 당직근무를 하시는 분이 순찰을 소홀히 하신 건 아닌지.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당직근무도 더욱 철저히 하고 학원내의 '비양심'을 추방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소.

祝

經營大學院 第2期 最高經營者課程
修了를 祝賀합니다

修 了 者 名 單

姜景豪 姜公佑 姜基千 康榮泰 康裕淳 姜貞淑 姜昶浩 高甲鳳 高明守 高柄珠
高奉奎 高成旻 高連秀 高壬順 高千右 高泰鮮 高和伯 金敬哲 金斗殷 金性益
金成洽 金世仲 金榮彦 金龍河 金崙錫 金在男 金正男 金昌範 金昌調 金錘瑛
金宅柱 文大詠 文成烋 文銖珍 文熙重 朴東光 朴炯鈺 白宗烈 夫弘宗 徐東欽
宋芳澤 宋連鳳 愼相範 安大榮 安世榮 梁景大 梁景昊 梁貞鎬 吳始洪 尹種悅
尹泰賢 李起百 李吉珩 李東春 李明植 李元珍 李宅潤 李華汶 張泰順 鄭光允
韓東錫 韓晳進 許尙守 玄根植 玄昌琡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最高經營者課程 第1期 同窓會

祝

行政大學院 第1期 高級管理者課程
修了를 祝賀합니다

修 了 者 名 單

吳在忠 李性述 張應模 申喆宙 文榮護 韓玹燮 姜政弘 文仁秀 金仁澤 李正忠
金漢昱 玄晩植 吳允廈 金大亨 金宇南 金興保 章在濬 李君先 韓性淡 李在玹
金尙弘 夫萬金 金重根 洪嘉允 金有善 宋斗金 李道爀 宋定彦 金在奉 高京珍
전신권 元大銀 高東煥 나승호 張永培 金吉雄 高漢浩 玄泰植 康太勳 梁圭植
韓昌助 金榮訓 梁載東 玄光洙 韓龍雲 吳成甫 金瑛贊 朴相晧 玄允朝 李鍾佑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敎職員一同